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제주에서 리프레시하고
새로운 성장을 그리다

3면

광화문 120m 상공에서 국내 최초 ‘슬랙라인’
룩스에서 짜릿한 현장 생중계

4면

룩스, 해외 광고 판매 새 길 열었다
중국 팬덤과 첫 직거래



10월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인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주 국립국악고 교감과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어머니 강미란 씨, 신동원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소장, 최예진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 교수. 사진=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최연소’·‘과학 첫 여성’ 수상자 배출 제40회 인촌상 시상식 개최

국립국악고(교육)-임윤찬(언론·문화)-신동원(인문·사회)-최예진(과학·기술) 수상



① 해외 일정상 시상식에 불참한 임 피아니스트가 영상을 통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② 시상식을 찾은 국립국악고 학생들의 모습. ③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이 수상자에게 직접 상장을 하고 있다.

인촌 김성수(1891~1955)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40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진강)와 동아일보사는 인촌 선생의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매년 시상식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한글날 연휴를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 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선생의 유지를 이어 나가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제40회를 맞은 인촌상은 매년 2~7명씩 수상자를 선정해 올해까지 총 163명(기관 포함)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교육·문화예술·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4개 부문에 메달·상금 각 1억 원

올해 수상자는 ▲국립국악고등학교(교육) ▲임윤찬 피아니스트(언론·문화) ▲신동원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소장(인문·사회) ▲최예진 미국 스탠퍼드대 인

간중심AI연구소 교수(과학·기술)다. 각각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특히 임윤찬 피아니스트(22)는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최예진 교수(49)는 과학기술 분야 첫 여성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촌상은 선생께서 민족의 독립과 산업 발전을 위해 토대를 쌓은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탁월한 공적을 이룬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라며 “40년을 뒤돌아보면 인촌상 수상자들의 평생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발전, 성장에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 국악 맥 잇고 세계 피아노 정상 우뚝

교육 부문을 수상한 국립국악고는 1955년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로 출발한 한국 최초의 국립 국악 전문 고등학교다.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전통적 구전심수(口傳心授) 방식을 정규 교육 과정과 체계적인 기보·교재·평가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독자 교육 모델로 정착시켰다. 김선주 국립국악고 교

감은 “우리 음악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와 나누며,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언론·문화 부문 수상자인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한 세대를 대표하는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다. 2022년 제16회 뱀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했다. 이어 2024년 첫 스튜디오 음반 ‘쇼팽: 에튀드’로 그래머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상을 받으며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였다. 임 피아니스트는 “영광스러운 인촌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정말 존경하는 인촌 선생님의 스피릿(정신)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며 “매일매일 새로운 음악을 찾아 나가는 음악가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과학사 집대성부터 AI 혁신까지

인문·사회 부문의 신동원 소장(66)은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를 집대성한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30권 발간을 주도했다. 이날 신 소

장은 “전통적인 혼천의와 서양식 자명종을 결합한 세계 유일의 독특한 시계인 혼천시계는 인촌 선생이 거금을 들여 보전한 것”이라며 “혼천시계가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한국 과학사 연구의 방아쇠가 됐다”고 인촌 선생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과학·기술 부문 상을 받은 최예진 교수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AI가 인간의 가치 및 다양성과 공존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에도 기여해 한국 AI 연구의 위상과 영향력을 크게 높였다. 최 교수는 “AI도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남들이 안 하는 것에 도전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의 가족, 친지 등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 공연은 국립국악고 출신으로 구성된 퓨전 국악공연팀이 펼쳤다.

제주에서 리프레시하고 새로운 성장을 그리다

2024년 하반기 입사자 27명, 2박 3일 리부트캠프 참여
DIY 자율여행·야외 액티비티로 재충전

10월 14~16일 제주에서 '2026 동아 미디어그룹(DAMG) 리부트 캠프'가 열렸다. 2024년 하반기에 입사한 동아일보·채널A 기자, PD, CD, 매니저 등 27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한편,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직접 여행 일정 계획해 실행

올해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여행 일정을 계획해 실행하는 'DIY 자율 여행'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직군과 부서가 골고루 섞인 각 조는 인재문화팀이 제공한 여행 가이드를 참고해 일정을 짰 뒤, 캠프 첫날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제주 곳곳을 누볐다.

참가자들은 플라로이드 카메라로 특별한 순간들을 남기고 그 소감을 각자의 'DIY 저널'에 기록했다.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DIY 앨범'을 완성한 뒤에는 각 조의 경험을 공유하며 추억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캠프에 앞서 사전 과제를

통해 입사 후 약 2년간의 회사 생활을 돌아보고, 선배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구체화했다. 캠프 첫날에는 직군별 대표들이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다짐을 발표했다.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 김휘진 CD는 자신의 직무를 창의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발표를 선보였다. 편집국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선유진 매니저는 DAMG의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편집국 사회부 천종현 기자는 진솔한 고민과 본인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눴다. 같은 시기에 입사했지만 서로 다른 직무에서 쌓아 온 동기들의 이야기에 공감과 웃음이 이어졌다.

제주 자연 속에서 재충전

제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야외 액티비티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참가자들은 제주 오름 아래 펼쳐진 초원과 숲길, 역사발 길을 따라 말을 타며 풍경을 만끽했다. 이어 사륜오토바이(ATV)를 타고 달리며 일상에서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① '2026 동아미디어그룹(DAMG) 리부트 캠프' 참가자들이 밝게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②, ③ 참가자들은 사륜오토바이(ATV)를 타고 달리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왼쪽 사진), 승마 체험을 하면서 제주의 자연을 만끽했다.



시원하게 날려 보냈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자연 염색 체험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연물을 활용해 손수건과 스카프를 물들이는 체험을 즐겼다.

캠프의 마지막은 'Record&Rebuild 워크숍'이었다. 각자 입사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면서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과 동기부

여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서울형 리부트 티켓'을 완성하며 2박 3일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캠프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만큼 짧은 시간에 정이 들었다",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동기들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2일 차

부터 캠프의 마지막 시간까지 참가자들과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서 회사 생활과 일상을 모두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 남경희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 김정은

재테크·일자리부터 미래 성장까지… DAMG가 마련한 다채로운 행사들



① 10월 14일 광화문광장이 '2026 리스타트 잡페어'를 찾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②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동아재테크쇼'에서 영승환 LS증권 이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③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 체어스 포럼'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화성·신원진

10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잇달아 열렸다. 재테크와 일자리 등 유용한 실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AI 투자 전략부터 AI 면접 체험까지

10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동아재테크쇼'는 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과 재테크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기존 2곳이었던 강연장을 3곳으로 늘리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연사진도 보강했다. 특히 세무와 재무설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강연을 확대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전략에도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염불리'라는 활동명으로 유명한 영승환 LS증권 이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10월 14, 15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취

업박람회 '2026 리스타트 잡페어'가 열렸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75곳이 참여해 114개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LG유플러스, 스타벅스 등은 잡페어 현장에서 직접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시테크관'에서는 핀테크와 IT,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일자리 부르는 버스'에서는 구직자들이 실제 면접을 연습할 수 있는 'AI 면접 체험'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워코노미 시대' 새로운 대응 전략 모색

제2회 '2026 체어스 포럼'은 10월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체어스 포럼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A의 대표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워코노미 시대: AI·안보·에너지'가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이슨 쉐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쉐커 회장은 '제2차 냉전 시대(Cold War 2)' 등 경제·금융·기술 분야에서 수십 권의 저서를

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로 꼽힌다.

이날 쉐커 회장은 워코노미(Warconomy·전쟁과 경제) 시대에는 AI 경쟁이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는다면 "AI와 첨단 제조업은 막대한 양의 전력과 인프라, 반도체, 핵심 물자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체어스 포럼 연설과 토론 전체 영상은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channelA-news)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편집국 경제부 신무경
보도본부 경제산업부 김성규



① 10월 1일 서울 중구로 세종대로 한복판 상공 120m에서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안 루스(Jaan Roose) 선수가 줄 위에 올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② 시민들이 안 루스 선수의 퍼포먼스를 바라보며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안 루스의 모습이 루스(LUUX)를 통해서 생중계돼 시민들은 현장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희성·송은석

광화문 120m 상공에서 국내 최초 ‘슬랙라인’
룩스에서 짜릿한 현장 생중계

슬랙라인 세계 챔피언 고공 퍼포먼스에 시민들 환호
DAMG 기술·콘텐츠·비즈니스 역량 결집해 프로젝트 완성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상공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안 루스(Jaan Roose)가 동아미디어센터와 코리아나호텔 옥상을 연결한 약 160m 길이의 줄 위에서 화려한 공교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 현장이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를 통해서 생중계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동아미디어그룹(DAMG)의 기술과 콘텐츠, 비즈니스 역량이 한데 모여 완성한 특별한 무대였다.

하늘 위 퍼포먼스를 눈앞의 경험으로

슬랙라인은 탄성 있는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스포츠다. 이날 루스는 120m 상공에서 줄 위를 걷는 것은 물론, 줄 위에 눕거나 거꾸로 매달리는 등 다채로운 동작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슬랙라인 퍼포먼스 행사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행사 당시 광화문광장 인근에는 1만20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이색적인 광경을 즐겼다.

현장의 짜릿함은 룩스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됐다. 지상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룩스의 움직임이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룩스가 아찔한 동작을 선보일 때마다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고, 퍼포먼스를 마치고 손을 흔드는 순간에는 박수가 쏟아졌다.

고궁 퍼포먼스 뒤로 경복궁과 광화문의 빌딩 숲이 한 화면에 담기며 시민들에게 익숙했던 도심 풍경이 색다른 무대로 변신한 순간이었다.

현장의 열기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산됐다. 동아닷컴 팩트라인·팀·엔터인사이드·팀·비디오-X팀은 온라인 기사와 디지털 매거진 콘텐츠를 제작했다.

동아일보·채널A 경영전략실의 크라우드 온팀은 중국 SNS ‘샤오홍슈’에, X-스페이스팀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이모지(@emoz_mag)’에 관련 콘텐츠를 선보였다. 스포츠동아의 ‘스타일디(@styled_news)’, 동아일보출판국의 ‘MMM(@mmm_mag_official)’, 동아일보 마케팅본부의 ‘몰덴룩(@morethan.look)’에도 콘텐츠가 올라갔다. 채널A 뉴스비전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7개월의 준비, DAMG 협업으로 완성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 동아닷컴 S-BIZ팀과 레드불의 협의로 첫발을 댄 뒤, 약 7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S-BIZ팀은 프로젝트 전반을 기획·총괄하는 동시에, 레드불 측에 생중계 기술 용역을 제안해 수주를 이끌어냈다.

채널A 미디어텍은 중계 연출과 카메라 운영, 드론 촬영, 중계차 운영 등 생중계 실무를 맡았다. 동아닷컴 뉴스테크팀과 인프라테크팀은 안정적인 생중계 송출을 위한 기술 및 장비 지원을 담당했다. 동아일보 경영지원국은 옥상 구조 안전 검토와 보강 작업을 지원했고 AD본부도 광고주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생중계에 힘을 보탰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아미디어그룹의 기술과 콘텐츠, 비즈니스 역량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동아닷컴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루스를 공간 및 콘텐츠를 연결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닷컴 S-BIZ팀 채비호

입시 서바이벌 예능부터 글로벌 드라마까지... 시청자 눈길 사로잡는 채널A 신규 프로그램

올 가을 채널A가 예능과 드라마를 아우르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왔다. 입시 서바이벌 예능 <티처스3 : 재수 전쟁>부터 글로벌 프로젝트 드라마 <키드냅 게임>, 첫사랑 구출 로맨스 드라마 <너에게 다이브>까지 다채로운 장르와 차별화된 소재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재수생 100명이 펼치는 치열한 도전

10월 15일 밤 10시, 대한민국 대표 에듀 솔루션 버라이어티 '티처스'가 시즌3로 돌아왔다. '티처스3: 재수전쟁'은 인생 마지막 수능에 도전하는 재수생 100명이 다양한 미션과 경쟁을 거쳐 최종 우승자 1명을 가리는 초대형 입시 서바이벌 리얼리티다.

이번 시즌은 학생 한 명의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고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던 기존 '티쳐스'의 강점을 살리면서, 최종 우승자에게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100인 서바이벌로 규모를 확장했다. 시즌 1부터 함께한 '수학의 신' 정승제 강사에 '국어 절대강자' 유대종 강사, '영어의 아버지' 김지영 강사가 새롭게 합류해 '티벤저스'를 이룬다.

참가자들의 사연도 다양하다. 대치동에
서 사교육비로 매달 400만 원을 썼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부터 사
교육 없이 전교 1등을 차지한 학생, 아버
지에게 간을 이식해드린 뒤 다시 수술에
도전하는 재수생 등이 눈길을 끈다.

첫 방송은 티빙 실시간 라이브 2위를 기록했다. 방송 이후 SNS에는 “스케일이 어



①, ②, ③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채널A 신규 프로그램 <티처스3 : 재수전쟁>, <키드냅 게임>, <너에게 다이브> 스틸컷.

마어마하다” “나도 재수생인데 방송에 나가볼 걸 그랬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스튜디오E 김승훈 CP는 “인위적인 자
막이나 연출된 서사로 학생들을 규정하기
보다 문제해결 과정과 성장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확보했
다”고 말했다.

색다른 매력의 드라마 두 편

10월 6일 밤 10시 첫 방송된 화요 드라마 '키드냅 게임'은 한국·일본·홍콩이 공동 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서울, 도쿄,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납치 사건을 다룬다.

‘키드냅 게임’에는 한국 배우 이준기와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 대만 배우 가가연 등 아시아 각국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며 긴장감을 더한다. 첫 방송 이후 디즈니플러스 '국내 TOP 10 시리즈'에 진입한 뒤 순위권을 유지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월 26일 첫 방송된 토일 드라마 '너에

신규 프로그램 라인업

◆ 티치스3- 재수전쟁

매주 목요일 밤 10시

키드냅 게임

매주 화요일 밤 10시

2010.12.17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

게 다이브'는 오래된 캠퍼드를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쌍둥이 남매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넘나드는 이야기다.

‘너에게 다이브’는 글로벌 OTT 플랫폼인 ‘라쿠텐 비키’에서 프랑스, 영국 등 100여 개 국가의 시청자 수 1위(10월 1일 기준)를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키드냅 게임’과 마찬가지로 첫 방송 이후 디즈니플러스 ‘국내 TOP 10 시리즈’에 진입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신지민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송수하

룩스, 해외 광고 판매 새 길 열었다 중국 팬덤과 첫 직거래

룩스(LUUX) 광고를 해외 팬덤에 직접 판매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해외 팬덤 광고는 현지 대행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거래를 성사시키며 수익성을 높이고 판로를 다변화한 것이다.

중국 SNS에 계정 만들어 룩스 소개

경영전략실 크라우드온팀은 9월 28일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중국 팬덤에 룩스 광고 구좌를 판매했다. 멤버 주은의 생일인 12월 3일에 맞춰 20초 분량의 축하 영상을 총 75회 송출하는 계약이다.

크라우드온팀은 올해 6월부터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슈(小红书)에 룩스 공식 계정을 만들어 중국 팬덤에 룩스를 소개해왔다.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입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이니지라는 점이 중국 팬들의 호응을 얻었고, 다 이렉트 메시지(OM)를 통한 단가 문의로 이어졌다.

이전에도 룩스에 해외 팬덤 광고가 송출된 적이 있지만, 모두 현지 대행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중국은 해외 결제 및 송금 관련 규제가 많아 현지 팬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기가 쉽지 않았다. 크라우드온팀은 나이스페이, 에어월

렉스 등 전자결제대행(PG) 서비스를 연계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 이 문제를 풀었다. 그 결과 9월 말 하츠투하츠 팬덤으로부터 광고 대금을 직접 결제 받으며 첫 직거래를 성사시켰다.

크라우드온팀은 앞으로 해외 고객이 룩스 광고를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미선 크라우드온팀장은 “이번에 구축한 해외결제 시스템을 DAMG 전반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결제 허브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전략실 크라우드온팀 김수연



중국 SNS 샤오홍슈 내 룩스 공식 계정에 올라온 홍보 게시물.

황룡사지 품은 ‘2026 경주국제마라톤’… WA 엘리트 라벨 2년 연속 유지

〈세계육상연맹〉



17일 경주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줄지어 첨성대 앞을 달리고 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전영한

‘천년 고도’ 경주의 가을을 만끽하며 달리는 2026 경주국제마라톤이 10월 17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렸다. 대회 참가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000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년 연속 WA 엘리트 라벨

올해로 34회를 맞은 경주마라톤은 지난해 처음 획득한 세계육상연맹(WA) 엘리트 라벨을 2년 연속 유지하며 대회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엘리트 라벨은 참가 선수들의 기록과 상급 규모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부여되는 인증으

로, 전 세계 67개 대회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올해 코스도 한층 새로워졌다. 경주시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황룡사지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기존 대릉원과 월성에 황룡사지구까지 더해진 이번 코스는, 참가자들에게 경주의 5대 역사유적지구 중 3곳을 내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대회 당일에는 강한 가을별과 함께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도 높은 23도까지 올랐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체온을 낮추고 안전한 완주를 돕기 위해 살수차 5대를 즉각 동원했다. 주요 코스 곳

곳에 물 80톤을 살포하며 빈틈없는 대회 운영 역량을 보였다.

경주마라톤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타 지역 참가자들이 대회 전후로 숙소를 잡고 경주 관광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에도 수도권에서 6079명이 참여했다. 특히 대회 전날에는 지역 기업인 황남빵과 협업해 조깅 행사인 ‘황남뽕런’을 열어 지역 먹거리와 달리기를 잇는 이색 체험을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신강혁

2026 사원확장캠페인, ‘쏟다! 쏟아! 동아일보가 쏟아!’ 진행



동아일보 마케팅본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아미디어그룹 사원을 대상으로 신문 사원확장캠페인 ‘쏟다, 쏟아! 동아일보가 쏟아!’를 진행한다. ‘쏟다’는 표현을 통해 임직원에게는 참여의 즐거움과 풍성한 혜택을 선사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나눔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관리우수상 최저 기준 2부로 완화

올해 캠페인의 특징은 신규·재연결에 기존 구독 유지까지 포함한 ‘관리우수상’의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3부 이상을 달성해야 관리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부만

달성해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확장 실적으로 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부수가 1건 있을 경우, 1부를 추가로 확장하거나 재연결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24종이었던 관리우수상 상품 종류도 40종으로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2026년에 입사해 사원확장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 1부만 확장해도 올리브영·무신사·다이소 중 1곳을 택해 3만 원권 상품권을 추가로 받는다.

올해 확장 우수상은 ▲대상 1명 300만 원 ▲금상 2명 200만 원 ▲은상 3명 100만 원 ▲동상 4명 50만 원을

지급한다. 관리우수상은 2부 이상부터 200부 이상까지 총 8개 실적 구간별로 달성자 전원이 시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리우수상의 경우 하위 실적 구간을 기존 10부·3부에서 10부·5부·2부로 세분화해 소규모 참여 유인을 높였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임직원 1명당 쌀 2kg을 기부하는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지난 캠페인 종료 후엔 참여 임직원 1311명 이름으로 전북 고창 쌀 2622kg을 서울 중구의 소외계층에 후원했다.

마케팅본부 마케팅총괄팀 김석호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신상예 / 채널A 콘텐츠전략본부

① 채널A에서 즐겁게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채널A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단단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② 유튜브와 OTT를 한 번씩 둘러보는 게 취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장르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봅니다. ③ SLL



황지영 / 채널A 스튜디오E

① 채널A의 일원이 되어 굉장히 설렘니다. 이곳에서 제가 제일 잘 하는 일을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오래 남을 장면을 만들어겠습니다. ② 요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오랜 취미이자 매번 새로움을 주는 캠핑을 즐기고 있고, 공매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③ 태그플러스



심아현 / 채널A 스튜디오E

① 좋은 콘텐츠와 브랜드의 접점을 다양화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IMC 경험에 새로운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더해 시청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신선한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② 봄과 가을의 신선한 공기를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분위기가 있는 곳 어디든 날씨를 핑계 삼아 야장과 산책을 부지런히 즐기고 있습니다. ③ JTBC 미디어룸

보도본부 김승희 기자, 서울변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



김승희 채널A 보도본부 기자가 9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창립 119주년을 맞아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받았다. 김 기자는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징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없이 승진한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변회는 “공공기관 내 무죄 추정 원칙이 반영되는 실태를 고발했다”고 평가했다.

수상 소식

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AiR edu, 교육부 장관상 수상



동아사이언스의 AI 과학 탐구 교육 술

루선 ‘과학동아AiR edu’가 9월 17일 열린 ‘K-에듀테크 콘테스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과학동아AiR edu는 동아사이언스가 보유한 10만 건 이상의 과학·수학 콘텐츠와 AI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에 더해 이번 수상으로 혁신성과 실용성을 인정받았다.